

# “지하주차장서 나가라”...광주·전남도 ‘전기차 포비아’

### 잇단 화재사고에 공포 확산...“정부·지자체 대체 충전시설·안전 인프라 제공 등 대책을”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에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무엇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 불안=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7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처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곳 아파트는 환경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60여 대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일부 입주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추가하라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전기차 공포 심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안전 대책을 주민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중앙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대체 충전시설지를 지정하거나 안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 서구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동구의 회도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진화용품 배치 지자체가 나서야=전기차 화재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 증가세다.

광주·전남도 안전 지대는 아니다. 광주에서는 2021년 2건, 2022년 2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2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개인의 힘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삼시간에 1500도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기차에는 많게는 수백개씩 리튬 배터리 셀이 설치돼 있는데, 처음 불이 난 배터리가 주변 배터리 온도를 급상승시키며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으며, 질식소화포(방염 처리된 천)를 덮거나 물이 가득 들어있는 소화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집어넣는 등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화포와 소화수조 모두 개당 200~300여 만원의 비싼 가격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어렵다.

리튬 등 금속물질에 의한 화재에 사용하는 금속 화재(D급) 전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지역민도 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방법상 D급 화재는 법적 화재 유형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소화기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더구나 배터리 화재의 경우 배터리에 축적된 에너지 때문에 꺼진 불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배터리를 감싼 케이스(셀) 때문에 소화약제가 배터리 내부로 잘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뿐 아니라 10시간 이상 오랫동안 타고, 유독 가스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 요소가 많다”며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화장비는 물론 지하주차장 등에 강력한 배연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충전 시설 안전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나 차량 40여대가 불타고 100여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에는 충남도 금산군 금산읍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부모의 기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0일 앞둔 7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 전남대 캠퍼스 교통사고 무방비...교통대책 개선돼야

#### 전국 17개 캠퍼스 분석

#### 지난해 6건 등 3년간 20건 발생

#### 전국 사고 운전자 80% '30대 이상'

#### 사유지 해당 돼 공적 관리 어려워

전남대 캠퍼스에서 최근 3년(2021~2023년)간 총 2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는 7일 전남대 캠퍼스를 포함한 전국 17개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0곳과 전남대를 포함한 지방거점 국립대 7곳을 대상으로 캠퍼스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전남대 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교육부의 전면등교 지침이 발효된 2021년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교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6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총 20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학교는 서울대(총 126건)로 전남대의 6배에 달했다. 캠퍼스 면적당(10만㎡당)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8.21건으로 서울대였다.

사고 발생 운전자 연령은 20대가 17.3%인 반면, 30대 이상의 운전자 80%로 나타나 재학생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캠퍼스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공적인 관리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재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달 17일부터 새로운 교통안전법이 시행돼 대학캠퍼스 도로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며 “학교도 캠퍼스에 버스·택시·배달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돼 있는 만큼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훈련병도 주말·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가능

#### 군인 '일과 후 사용' 현행 유지

군인 휴대전화 사용 관련 '일과 후 사용'(평일 오후 6시~밤 9시, 휴일 오전 8시 30분~밤 9시)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해졌고 군병원 입원한

자 등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보완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정책은 2020년 7월 정식 시행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총 3차례 확대해 시범운영을 거쳐 결정됐다.

3차 시범 운영에서는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계속됐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기 때문이다.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와 등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3차 시범운영 방안이 시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내년 초등학교원 광주 45명·전남 128명 선발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한자릿수 초등학교사를 선발했던 광주시교육청이 내년에 45명을 뽑는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4200여 명, 중·고등학교 교사로 48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전국 지역 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전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선발 규모를 늘렸다. 선발이 예고된 인원은 모두 4245명으로 올해(사전예고 기준 3108명)

보다 36.6% 늘어난다.

광주는 45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전년도 최종 선발공고 인원(6명)의 7.5배에 달한다.

지역별 사전예고 인원은 ▲서울 265명(증가폭 140.9%) ▲인천 224명(40.0%) ▲광주 45명(650.0%) ▲대전 43명(330.0%) ▲경기 1765명(33.2%) ▲전북 111명(170.7%) ▲전남 128명(-14.7%) 등이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은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시행 때문이다. 이 학교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